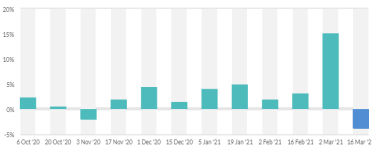




## [가격동향] GDT 가격, 거래물량 급증으로 상승세 한풀 꺾여

– 전장대비 3.8% 하락...서유럽 수출가격은 상승세 이어가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93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161
Number of Bidding Rounds	16	Quantity sold (MT)	26,872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	2:03		
Minimum Supply (MT)	25,075		
Maximum Supply (MT)	30,095		

지난 3월 16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7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3.8% 떨어진 반면, 가격지수는 1,295포인트로 전년동기 929포인트 대비 3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지분유가 톤당 4,083달러(약 462만원)로 6.2%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버터도 톤당 5,659달러(약 640만원)로 전장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지분유는 톤당 3,350달러(약 379만원)로 전장대비 0.7% 오르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번 경매에서 체다치즈는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에서 거래된 품목별 물량이 2주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제품 가격이 한풀 꺾였으나, 현재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에 따른 물류이송 문제와 더불어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높은 원유 및 전지분유 생산비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로 향후 수개월간 유제품, 특히 전지분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은 2주전 대비 버터는 5.4%, 탈지분유는 0.9% 그리고 전지분유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3월 16일, USDA, 3월 5일자 >

## [소비동향]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치즈 소비 역대 최고

– ‘컴포트 푸드’ 수요 증가로 가정내 치즈 소비량 최고치 기록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홈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치즈 소비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수산업진흥공사(AgriM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위안을 주는 음식인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치즈 판매량이 2019년 대비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특히 가정내 소비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산 모차렐라 판매량이 21.2%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라클레트 치즈 판매가 12.2%, 콩테 치즈는 8.2%, 에멘탈 치즈는 7.8% 늘어났고, 우유로 만든 치즈는 9.4%, 유기농 염소 치즈 판매량도 3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푸드 매거진은 “집에서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치즈가 식재료 또는 간편한 한 끼 식사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특히 치즈는 녹였을 때 부드러운 식감과 맛이 소비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클레트 치즈 생산자 협회(AFTAlp)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내 치즈 소비 증가로 식당 서비스업 폐쇄에 따른 수요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theguardian.com, 3월 1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